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봉성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Sr.마리루시	

오늘 2차 현금 있습니다.

###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 산 다미아노 훌/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하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연령회원 김영빈(루시아) 자매님께서 1월 17일 선종 하셨습니다. 고인과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 2월 8일(주일) 김주남 베드로 신부 미사 집전

이웅희 루카 신부님의 성지순례(2/2-2/13)로 2월 8일 주일 미사는 김주남(베드로, 전주교구)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됩니다.

### 성지가지 회수

작년 주님 수난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렸던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각 집에 두었던 성지가지를 코리안 오피스 복도에 있는 성지가지 회수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재의 수요일(2/18) 예식 때 사용됩니다.



### 2026년 축성초 판매(주관: 학부모회)

올 한 해 동안 가정에서 기도할 때 사용할 축성 받은 초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오늘 미사 중 초 축성예식이 있습니다.)

판매일: 1/25(주일), 2/1(주일)

판매가격: 기도의 성모 부조 초 (\$25), 일반 초 (\$15)

장소: 산 다미아노 훌

### 설 합동 위령 미사 신청

\*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미사: 2월 15일(주일), 09시 15분

신청: 미사 후 산 다미아노홀(연령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신청 마감: 2/8(주일)

### 2026년 견진성사반 안내

대상: 세례성사를 받은 성인

(\*타 성당 교적 신자의 경우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교육기간: 2/22-3/29 시간: 1:00 PM~ (장소: 추후 공지)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2026 전 신자 SNS 성경공동통독(요한/사도행전)

2025년 대림시기 <공관복음(마르코, 마태오, 루카)> 통독에 이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공동통독을 시작합니다. 주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영적 준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대상: 2/8-3/28, 전 신자

방법: 각자 매일 1장씩 정해진 분량 읽기, 언제든 참여 가능(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진도가 나간 분량을 개인적으로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참여방법: 1. QR 스캔 또는

<https://open.kakao.com/o/g2b2QQUh>

2. 코드 10001 입력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54일 묵주기도 모임

2026년 '영성의 해'를 맞아 일상기도의 심화를 지향하며 '54일 묵주기도'를 함께 시작하는 모임을 마련합니다. 묵주기도 첫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후 개별로 기도 합니다.(\*기도 기간 동안 2-3회 중간모임 있을 예정)

시작모임: 1/31(토), 10:30AM(준비물: 묵주, 필기도구)

장소: 프란시스룸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2026년 상반기 청년피정

날짜: 2/14(토) - 2/15(주일) (1박 2일)

참가비: \$230

피정장소: Graymoor Friars of the Atonement

문의: 929. 660. 4456 (청년분과장 진현종 빈첸시오)

### 미 동북부 제 68차 기초성령세미나

일시: 2/19(목) 5:00PM ~ 2/22(주일) 5:00PM

장소: 뉴튼 수도원, 297 US-206, Newton, NJ, 07860

참가비: \$390(식사 및 숙박 포함), 교재비: \$15

문의: 917. 929. 4242 (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http://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b>옥토</b>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a href="http://www.octo.nyc">www.octo.nyc</a>	<b>WONJO</b>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a href="http://www.newwonjo.com">www.newwonjo.com</a>
 <b>UDON Lab</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a href="http://www.udonlab.com">www.udonlab.com</a> <a href="https://www.instagram.com/@udonlab_nyc">@udonlab_nyc</a>	 <b>더큰집</b>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a href="http://www.kunjip.nyc">www.kunjip.nyc</a>
 <b>Kim &amp; Bob Shop</b>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a href="http://www.kimandbobshop.com">www.kimandbobshop.com</a>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b>120 5th &amp; West WINE &amp; LIQUOR</b>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b>마리아 투어</b>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b>백이백 변호사</b> 201-224-3400 718-445-0345 <a href="mailto:Paicklaw@gmail.com">Paicklaw@gmail.com</a>
 <b>CARGOZONE</b>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 marketing@czlusa.com ☎ 657-337-5130	 <b>Nest Seekers</b>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a href="mailto:krishap@nestseekers.com">krishap@nestseekers.com</a>
<b>Clear Laser CITY CLINIC</b>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흠집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b>HAPPY HOME CARE</b>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a href="mailto:happyhomecare.rn@gmail.com">happyhomecare.rn@gmail.com</a> I:I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b>MIDTOWN SMILE DENTAL</b> <a href="mailto:hello@midtownsmiledental.com">hello@midtownsmiledental.com</a>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b>Colleen Insook Lee, M.D.</b>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a href="mailto:drleesmedical.mht@gmail.com">drleesmedical.mht@gmail.com</a>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 생명의 말씀



##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다는 것의 의미

김민 요한 신부 |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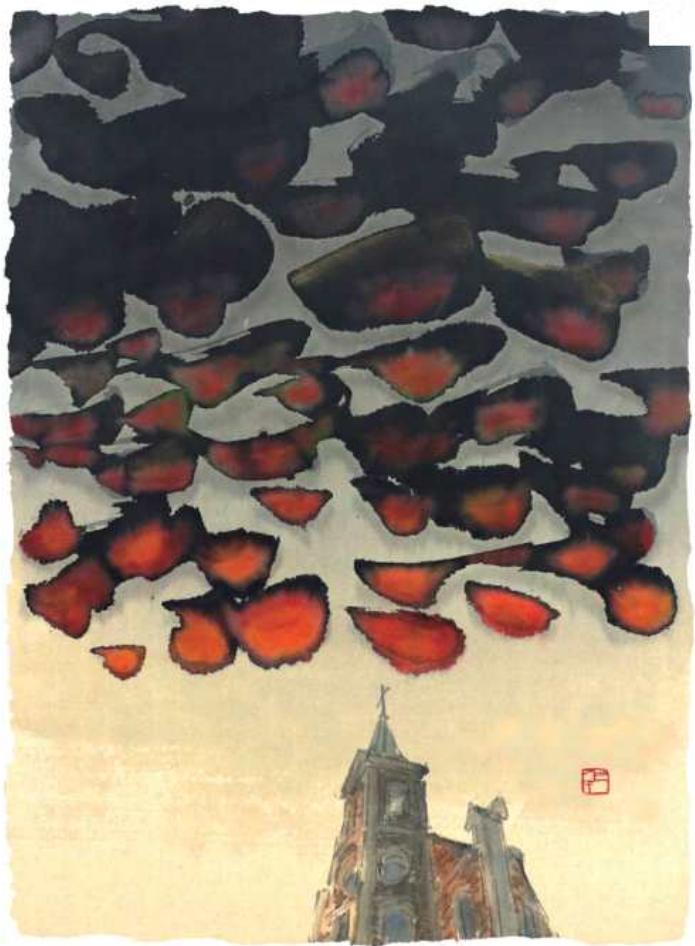
저의 어린 시절을 표현하는 한마디의 말을 찾아보면 아무래도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학급이 바뀌면 또 불안해하고, 전학이라도 가면 불안해하는… 계속되는 불안은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쉽게 발견하는 기본적인 정서였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불안감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낮은 자존감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착잡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는 데 열을 올렸고, 다행히 그 노력이 통했습니다. 낮은 자존감 덕분에 감사할 일도 있었던 셈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제가 저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고 불안에 떨지 않게 되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때는 서른이 되어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주일 미사 중에 들었던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할 때, 여러분 마음속의 예수님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신다.”라는 요지의 강론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이 제가 수도 성소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 단순한 메시지가 제게 그토록 큰 울림이 되어주었고, 불안을 가시게 했을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고백록』에서 “주님 안에 쉬기까지 내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대목은 어떤 점에서 저의 영적 여정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존재입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 같은 중요한 생애 주기 동안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궁구하는 ‘좋은 방향’을 하기보다는 마치 경마장의 말처럼 눈이 가려진 채 내달리기만 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닿고 싶어 하지만, 그 ‘어딘가’ 조차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둠 속에 머무는 이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두 쌍의 형제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갈 곳 잃은 영혼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 마디마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잊고 있던 희망을 되살리며,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게 하십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에게 빛이 떠올랐다.”(마태 4,16 참조)라는 말씀의 의미, 그리고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형제들의 삶에 그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곱씹어 본다면, 우리도 잠시나마 ‘주님 안의 쉼’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 그림 해설

새벽 하늘 | 하루하루가 새날임을 알아보게 하시려고, 하느님은 오늘만의 구름을 펼치시고, 오늘만의 말씀을 준비하시나 봅니다. 나를 멈추고 사물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고요에 머물면, 피조물을 다독이시는 창조주의 손길이 어렴풋이 느껴져 오고, 수많은 이웃의 생명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임을 알아봅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